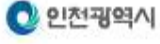
		<h2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2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3월 9일(화) 총 2매		
담당부서	투자창업과	담당자	• 투자유치팀장 김미연 ☎440-3291 • 담당자 차순경 ☎440-3292	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국내복귀기업 유치 실적 역대 최고!

- 전국 18개의 국내복귀기업 중 4개사 유치, 전국 1위 -
-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특별우대, 기계설비·공장 확보자금 지원 등 지원책 마련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020년 인천의 유턴기업 유치 실적이 전국 18개의 국내복귀기업 중 4개사를 유치하여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며 전국 1위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.
- 이런 국내 복귀기업 유치실적은 코로나19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맞춤형 시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.
- 특히 금번 국내복귀 기업 중 A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 후 미국 등의 해외지사를 가지고 첨단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회사로 중국 생산 공장을 철수 한 후 320억원을 투자해 인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8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.

- 국내 복귀기업이 A사의 경우처럼 모두 대규모의 자본과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는 기업은 아니다. 그러나 인천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등에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.
- 인천시는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특별우대 지원, 기계설비·공장 확보자금 지원과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등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올해도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쓸 계획이다.
- 또한 해외공장을 운영하는 관내기업 등에 대한 리쇼어링 가능성을 분석하고 국내복귀기업 상담센터 운영, 찾아가는 국내복귀 지원 제도 설명회 등을 코트라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유턴기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.
-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코로나19 팬데믹, 미·중 무역분쟁 장기화, 일본 수출 규제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여러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으며, 인천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전폭적인 지원책 등 마련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” 고 말했다